

## 과학 꿈나무의 싹을 틔워주신 선구적 물리학자 김정흠(金貞欽) 교수



글\_ 심광숙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kssim@korea.ac.kr

지난 2005년 10월 2일 우리 나라 물리학 발전에 크나큰 공헌을 하신 김정흠 교수께서 예기치 않은 급작스런 병환을 이겨내지 못하신 채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셨다. 김정흠 교수는 나라를 빼앗기고 국제정세 또한 불안정한 격동기인 1927년 독립운동가인 김시형 님의 3남으로 평안북도 용천군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신의주에서, 중등학교를 중국 텐진에서, 그리고 대학생활을 베이징대학에서 시작하여 독립 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하셨다.

1953년 6.25 전쟁중 피난지인 대구에서 설립된 고려대학교 물리학과에 전임교수로 부임하여 창설된 학과의 교육기틀을 닦으셨다. 선생님은 1957년 미국 로체스터 대학에 유학하여 당시로는 드물게 원자핵 물리학 이론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귀국한 후에는 고려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생들은 물론 전국 각 대학의 전임교수가 매우 부족하던 시절인 1960년대 수도권을 포함하여 여러 지방대학의 대학원생들에게 양자물리학 및 원자핵물리학 강의를 통해 새로운 학풍을 불어넣기 시작하셨다.

한국물리학회 발족 당시부터 주도적인 참여를 한 김정흠 교수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 학회 발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셨다. 학회 총무간사로서 기구 및

제도를 확립하셨을 뿐만 아니라 베테(Bethe) 및 호프스테터(Hofstadter) 박사 등 여러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들을 국내로 초빙하여 초청강연을 개최하는 등 학술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셨다. 더욱이 편집간사 재임중에는 학회지인 '새물리'를 편집, 제작하는 한편 아직 우리 나라 학계가 미처 국제화가 되어 있지 않은 1967년 편집위원장 시절에 이미 영문학술지인 'Journal of Physical Society(JKPS)' 지 발간을 추진하여 국제학술지 발간의 토대를 마련하셨다. 이러한 선생님의 선구적인 혜안으로 1992년에는 국제적 공인을 받는 SCI 등재논문으로 인정되어 오늘날 국제학술지로서의 위상을 떨치고 있다. 또한 1977년에는 한국물리학회에 용어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용어심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그때까지 통일되어 있지 않던 많은 학술용어들을 정리하셨다. 그 결과 1981년 드디어 물리학용어집을 완성하여 발간함으로써 후학들로 하여금 유용하게 이용토록 하셨다.

1977년에는 한국과학저술인협회를 창설하여 초대회장 홍문화 박사에 이어 2대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협회를 중심으로 과학대중화를 위한 각종 심포지엄, 세미나, 대중강연회 등을 통해 과학기술을 일반대중에게 알기 쉽게 알리는 계몽사업을 펼쳤다. 1988년대초에는 서울법대 김증한 교

수와 함께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를 설립하여 지적소유권의 중요성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는 동시에 저작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구조 활동을 하는 등 다가올 미래 고도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는 기반을 굳게 다지는 역할을 하셨다.

1965년 이래 저술활동 또한 활발하여 1970년대부터는 중앙의 주간지 및 월간 청소년 잡지 등에 김정흠 칼럼을 통해 첨단과학과 기술, 미래세계, 천문우주 등의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풀이하여 수많은 글을 기고하셨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서는 라디오 및 TV 과학 프로그램(신비스런 과학, 과학 탐험대, 미래사회, 정보화 사회) 등에 출연하여 일반 대중 및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을 펼치시며 과학 한국의 도약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셨다. 지난 5월 중순 입원하시기 직전까지만 해도 여느 때처럼 정력적으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펼치시며 장래 계획을 구상하시던 선생님께서 이처럼 홀연히 떠나시니 허전하고 슬픈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선생님께서 한 평생을 한결같이 펼치시던 과학기술 계몽활동이 우리 나라 꿈나무들을 통해 활짝 꽃피워져 더욱 더 부강한 선진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모습을 하늘나라에서 지켜보시며 편안히 영면하시기를 기원해 드린다. ㉔